

보도시점

2026.8.31.(월) 16:00

배포

2026.8.31.(월) 09:00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개발연구원(KDI) AI 시대의 성장전략 논의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공동 정책포럼 개최

-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한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성장과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연계한 증거기반 정책 인프라 구축 등 제안
- ◆ 국내총지능(GDI : Gross Domestic Intelligence)과 한국 창의성 지수(KCI : Korean Creativity Index) 도입 및 AI서비스의 제품화·시장형성·스케일업 등 AI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 등도 논의

대통령을 자문하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민국 대표 경제 연구기관인 KDI는 8월 31일(월)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세직 KDI 원장을 비롯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김세직 KDI 원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한국경제가 장기성장을 하락과 모방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고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재산권과 보상 체계를 부여하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HI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창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장기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이제는 기존의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AI수요·데이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의 성장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재교육을 통해 회복시키는 「(s,S)형 평생교육」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하고 AI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연계해 증거 기반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요약문은 별첨2 참고>

패널토론에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기조발제자 2인과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김재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이운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AI 시대 한국의 제조업 2.0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보완과제, 아이디어·창의성의 경제성장 연결방안 및 스타트업 AI서비스의 성장전략 등 AI시대의 진짜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석준 교수는 제조업을 재화 생산이 아닌 지능을 축적·생성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제조업 2.0 전략 구축을 제시하면서, AI 시대의 본원적 원천인 지능의 생산과 축적을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 국내총지능(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하여, 한국이 가진 초격차 메모리 반도체 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잇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통합 설계하는 한편, ¹⁾산업별 공정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²⁾기업 간 데이터 신탁 제도, ³⁾제조 AI 디자인하우스 육성을 3대 축으로 하여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지능 전이 사다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재준 교수는 K-pop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초격차 예술가와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가 부재한 현실이 국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기반 창의성 평가제도와 한국 창의성 지수(KCI) 도입을 통해 한국이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먼저 설계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특정 엘리트나 유망 분야를 선별해 집중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 탐색과 비주류 아이디어들이 독자적인 평가를 받고 보존·연결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창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교수는 AX시대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은 AI서비스 기업이 기술을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반복매출과 스케일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데 있다며, 맞춤형 SI 중심의 구축 방식과 폐쇄적인 내부수요에 의존하기보다, 개방형 상용 SW·SaaS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성과도 GPU 배정량, 선정기업 수, PoC 건수가 아니라, 구매전환율, 비계열·반복고객 수, 2년 후 지속사용률, 스타트업의 반복매출과 고객기업의 생산성 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AI가 일부 선도기업의 혁신을 넘어 경제 전체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포럼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혁신도 매우 중요하다, 누적된 관료적 규제가 창의를 막고 있다, 단년도 회계와 칸막이 행정이 R&D와 AX,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보상 체계로 제도를 전환하고 혁신 수용성이 커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부의 방향타와 추진력이 집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KDI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과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안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포럼 자료집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공지사항/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31(월) 14:00 upload 예정)

- ◇ 해당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보도자료의 작성된 내용은 편의상 제공되는 내용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현장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세부 일정

[별첨 2] 발제 요약문

담당 부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성장경제팀	책임자	팀 장	양병 권 (02-731-2420)
		담당자	사무관	김서진 (02-731-2423)
		담당자	연구관	노지혜 (02-731-2425)
	KDI 대외협력실	담당자	실장	정영호 (044-550-4655)



❖ 별첨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 ~ 14:05	개회 선언
14:05 ~ 15:05	기조 발제 발 제 ①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김 세 직 KDI 원장 발 제 ②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 방안 류 근 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5:20 ~ 16:20	패널 토론 좌 장 김 성 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토 론 권 석 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김 재 준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명예교수 이 윤 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 세 직 KDI 원장 류 근 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6:20 ~ 16:25	폐회 선언

❖ 별첨 2. 발제 요약문

[기조 발제 ①]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김세직 KDI 원장

- [문제 인식]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0%대 성장률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률 추락을 막는 데에 한계, AI의 발전으로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출발점인 휴먼 아이디어(HI)의 가치가 확대
 - 경제성장의 핵심은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나, 그간 모방형 인적자본 육성에 치중해 왔으며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
 - 막대한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과와 성장률 개선이 미흡한 것은 기술 혁신의 핵심 투입 요소인 HI에 대한 투자와 보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
- [정책 방향]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고 기술 주도 성장을 HI 주도 성장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아이디어 창출·보호·보상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해 국민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소유권·재산권을 부여, 정부가 아이디어를 유통·경매한 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원작자에게 환원
 - KDI에 공공부문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를 우선 도입, 정책 시행으로 발생한 예산 절감 및 사회적 편익 등을 평가하고 원작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시도
 -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력과 발명형 사고를 키우는 ‘HI 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인적자본을 축적
 - 대학입시 및 교육과정에 창의성 평가와 창조형 수업 비중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업무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 [기대 효과] 국민 다수가 아이디어 창출에 참여하는 대중 기반 혁신 체계가 조성되어 혁신기업과 신산업의 출현을 촉진, 나아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성장률 반등에 기여
 - 이를 위해 HI에 대한 교육·보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기조 발제 ②]

AI 시대 국가잠재력 제고 전략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AI 시대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기존의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AI 수요·데이터·지역을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 성장 체제로 전환
 - AI 확산에 따른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와 초고숙련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성장정책과 재교육·전환 훈련·노동이동 지원을 함께 설계
- 교육체계는 평균적 인재의 대량 양성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평생 재학습 중심으로 전환
 - 획일적 평균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융합 역량·문제정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은 지식 전달 기관에서 학생별 학습경로를 설계하는 'Gallery - Curator'형 교육기관으로 전환
 - AI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과 직무 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역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재교육을 통해 회복시키는 (s,S)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평생 재학습 플랫폼으로 개편
- AI의 기술 공급뿐 아니라 기업의 활용과 수요를 확대하고, 교육·산업·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AI 확산 체계를 구축
 - 서울대 ABS·ABC와 같이 청년 AI 인재 양성과 기업 최고경영자의 AI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모델을 지방대학·지역기업으로 확산해 청년 - 기업, 교육 - 산업, 수도권 - 지역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여 증거기반 정책의 국가 인프라를 구축
 - 인구·가구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지역·공간데이터를 연계해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인구이동·기업입지·고용·재정지출 등을 함께 분석하여 복지·조세·산업정책뿐 아니라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 대응에도 활용
-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인재·수요·데이터·지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성장 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